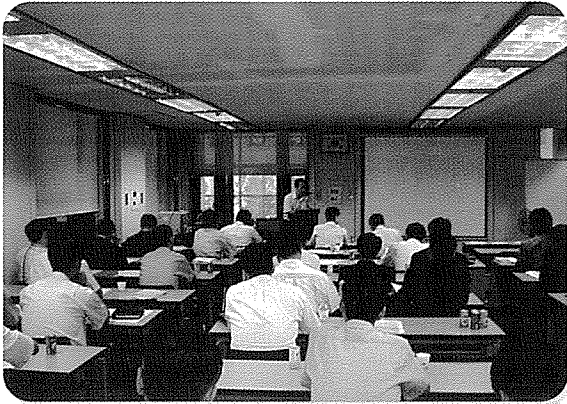




## 2006년도 비파괴검사기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 회의



2006년도 비파괴검사기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 회의가 7월 14일(금) 당 협회 회의실에서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파괴검사기관 대표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호신(KINS 방사선안전규제부) 부장의 인사말을 비롯한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안)(편경범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장) ▲NDT 종사자의 피폭저감화 방안(한국비파괴검사협회 원광희) ▲2006년 비파괴검사기관 정기검사 등(조대영 KINS 방사선기기운반규제실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 국립중앙과학관 'X-Ray Tube' 특별전시회 개최

- 고 남정우박사 기증 엑스선관 발달사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조청원)은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 연구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남긴 (고) 남정우 박사 타계 5주기를 맞아 7월 18일~31일 2주간 X-Ray Tube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고) 남정우 박사는 1955년부터 1976년까지 20여년간 보건사회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우리나라의 방사

선보전에 근간을 세운 과학자이다. 1976년부터 1992년까지 16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구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 대선량 표준화 및 지역간 비교측정을 통한 인증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는 국제 방사선 연구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다가 2001년 타계했다.

1992년 현직에서 정년퇴임 후에도 소장하던 과학장서 및 방사선 안전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증했다. 방사선 보건분야 발전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 남정우 박사는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일생동안 엑스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고이 보관하면서 귀중한 자료를 공공기관에 기증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이를 2001년에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하였으며 Gas ion tube로부터 Rotating anode tube에 이르기까지 44점으로 엑스선관의 발달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2006년 타계 5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특별전시를 하게 되었다. 고인의 고귀한 뜻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풍토를 심어줌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생활화·대중화하는데 힘을 심어 줄 것이다.

### 원자력기술 이용해 '웰빙 식초' 개발

- 나주 배에 포도 첨가, 항산화 효과 높은 기능성 천연 식초 -
- 한국과 일본에 특허 출원, 시제품 개발 마치고 시판 눈앞 -



과학기술부는 7월 19일 나주 배와 포도를 혼합 발효시켜 항산화 기능을 50% 이상 높인 고기능성 천연 과일 식초가 개발됐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 분소 방사선연구원 김동섭 박사팀이 개발한 이 과일 식초는 전남 나주 특산물인 신고배에 캠벨 포도를 첨가해 항산화 기능을 50% 이상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와 일본 특허를 출원하고 시제품 '포도 배로 미(美)'를 개발 완료한 데 이어 민간 기업에 기술

을 이전, 조만간 시판할 예정이다.

천연 배-포도 식초는 저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나주 배와 캠벨 포도 원액을 8대2의 비율로 혼합한 뒤 알콜 및 초산 발효와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이온화 에너지(감마선)를 조사,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 제조됐다.

배-포도 식초는 배식초에 비해 pH와 산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강한 식초 냄새의 원인인 락트산 함량은 줄어든 반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항산화 기능성 식초 개발엔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이 활용됐다. 천연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생육으로 인한 이상 발효가 일어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 열을 가할 경우 영양분과 유효 성분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다.

김동섭 박사는 기존의 고온가열법 대신 감마선을 조사해서 유효 성분은 지키면서도 완전 멸균하는데 성공했다.

-내용출처 : 데일리엔파워, 2006. 7. 19 -